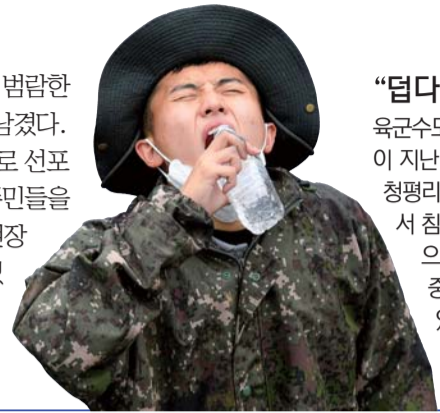


● 포토 캘린더 <8월>

전례 없던 8월 한 달간의 집중 호우는 한반도 전역을 쓸대밭으로 만들었다.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지겹게 쏟아진 폭우로 범람한 강과 하천이 마을과 논밭을 흠탕물로 가득 채웠다. 산사태로 무너져 내린 흙더미가 가옥과 도로를 덮치며 곳곳에 큰 피해를 남겼다. 전남 구례군과 전북 남원시, 경기 이천시, 강원 화천군, 충북 단양군 등 무려 67개 지방자치단체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을 정도로 피해는 전국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앞선 데 달진 격으로 수도권발 코로나19의 재확산은 시름에 잠긴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복구 작업을 더디게 만들었다. 국민을 위한 군대, 국군 장병들의 헌신이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빛을 발했다. 재해현장 대민지원 작전은 장병들에게 그 어떤 힘든 훈련보다 고되게 다가온다. 열악한 상황 속에서 지쳐있는 주민들을 바라보며 쉽지가 않아야 하기에 더욱 그렇다. 그러기에 국군 장병들이 현장에서 흘린 땀은 너무나 소중한 고맙다. 희망을 세워준 빛과 같은 장병들의 대민지원 모습을 국방일보 사진기자들의 사진으로 만나본다.



“덥다”
육군수도기계화보병사단의 한 장병이 지난 6일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청평리 일대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서 침수가옥의 가재도구를 집 밖으로 빼내는 대민지원을 돕던 중 물을 마시며 갈증을 씻고 있다. 조용학 기자



하루라도 빨리 지난 13일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생청리 일대에서 육군3사단 장병들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서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논둑 보강 중부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4일 충청북도 충주시 엄정면의 한 수해농가를 찾은 공군19전투비행단 장병들이 급격히 불어난 물로 붕괴된 논둑을 보강 하고 있다. 조용학 기자



진흙 속 보석같은 발걸음

진흙 뒤덮인 군화
지난 5일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후인리의 6·25전쟁 참전용사 박남하옹 자택에서 수해복구 대민지원 중인 육군특수전사령부 비호부대 한 장병의 군화가 진흙으로 얼룩져 있다. 양동욱 기자



폭염 속 아름다운 땀방울

땀아도 땀아도...
지난 19일 전라남도 곡성군신리일대로 대민지원을 나온 육군31사단 광양대대의 한 장병이 침수피해를 본 비닐하우스의 폐비닐을 걷어내면서 비 오듯 흐르는 땀을 닦아내고 있다. 이경원 기자



무너진 다리 대신할 ‘간편조립교’ 지난 12일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천도리에서 육군3군단 공병여단 장병들이 집중호우로 다리가 내려앉아 고립된 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 작전용 교량인 ‘간편조립교(MGB-Medium Girder Bridge)’를 설치하고 있다. 조종원 기자



망가진 비닐하우스 육군특수전사령부 예하 천마부대 전갈대대 장병들이 지난 21일 전라남도 곡성군 고달면 일대 딸기 재배 비닐하우스에서 침수로 망가진 딸기포트를 옮기고 있다. 조용학 기자